

「원자폭탄피해자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방안 및 예비조사」

일본의 원폭피해자 조사 및 지원제도 현황

2018.10.31

□ 출장목적

- 일본의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2세에 대한 지원체계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원폭피해자 조사 체계 마련에 참고하고자 함.

□ 과제명

- 원자폭탄 피해자 등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방안 및 예비조사

□ 출장기간

- 2018년 10월 14일 ~ 16일 (2박 3일)

□ 출장지역

- 일본 동경

□ 출장자

- 정연 부연구위원, 서제희 부연구위원

□ 일정요약

출장일	국가	방문기관	면담자	활동사항
2018.10.14. (일)	일본/동경			• 출국
2018.10.15. (월)	일본/ 동경	후생노동성 보건국	무라이 코우헤이, 겐유 아다치	• 일본 피해자 1세에 대한 실태조사 체 계 및 주요 결과, 정책적 활용도 • 피해자 2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 및 지원 계획 • 원폭 영향의 유전성에 대한 연구 내용
		일본원수폭 피해자단체 협의회	데루미 다나카, 미치코 코다마, 쿠도우 마사코	• 원수폭피해자협회의 역할 및 원폭피해 자들의 정책 요구사항 • 피해자 2세의 건강문제 사례 •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지원정책
2018.10.16. (화)	일본/ 동경	도쿄도 원폭피해자 단체협의회	미치코 무라타, 마토하야 카츠마사	• 동경도 내 전체 원폭피해자 규모 •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건강검진 항 목, 주기, 참여 의료기관수 • 원폭 피해자 2세에 대한 검진 외 지원 내용
	한국/인천			• 귀국

1. 일본 원폭 피해자 규모와 건강수첩 교부 현황

- 현재 피해자 규모(생존자 수)
 - 2018년 3월 말 기준, 15만 6,859명(건강수첩 교부자 중 생존자)
- 건강수첩을 교부받지 못한 사람 유형
 - (그 당시 너무 어려서)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
 - 교부 신청 시 연령이 고령이어서 건강과 원폭 피해 상관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 불임의 원인으로 낙인이 될까봐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여성들.
 - 나라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중 피해자
- 건강수첩 신규 교부
 - 2018년 3월 말 기준 98명(확실치는 않으나, 외국인도 포함된 숫자일 것).

2. 일본의 원폭피해자실태조사 개요

- 1957년 원자폭탄의료지원법 제정
 - 원자폭탄 투하 이후 12년 동안 정부차원의 지원은 전혀 없었음.
 - 원폭 피폭자들의 건강문제들이 점차 문제가 되면서 56년에 피해자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별(도도부현)로 설립되기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여파로 지원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피해자 구분: 법상 피해자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건강수첩을 교부 있으나 지원 내용에는 차이가 없음.
 - 1호(직접 피해: 원폭 투하 당시 나가사키 주민, 히로시마 주민).
 - 2호(출장, 친척 방문 등 원폭 투하 당시 나가사키 또는 히로시마에 있던 사람, 구호활동이나 가족을 찾으러 해당 시에 들어왔던 가족 및 친인척. 단, 원폭 투하 장소에서 2기로 이내에, 원폭 터진 후 2주 이내에 들어간 사람).
 - 3호(원폭 터지고 나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장소에서 피해자와 접한 사람들. 병원에서 원폭 피해자를 돌본 의료진 또는 자원 봉사자들 등).
 - 4호(1,2,3호 피해자 태내에 있던 사람)
 - 피해자 구분 기준의 제한점: 히로시마는 동그랗고 원자폭탄이 가운데 떨어져

서 히로시마 주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나가사키는 길쭉한데다 한쪽에 치우쳐서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거리상 원폭 투하지와 가깝지만 나사키 주민이 아니어서 수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재 소송 중임.

○ 피해자에 대한 지원

- 보건(건강검진), 의료(치료비), 복지(생활비, 수당).
- 1세는 정기 검진이 2번, 원할 경우 추가로 암 검진 시행: 모든 암에 대해서 시행하지는 않음. 혈액암(백혈병, 다발성골수종 등), 폐암, 위암, 자궁경부암을 건강검진으로 시행하고 다른 암에 대한 건강검진을 원할 경우에는 검사가 가능한 근처 병원에서 검사 후 의료비 청구(모든 의료기관이 모든 암에 대해서 검진 또는 검사가 가능한 것인 아니기 때문임).
- 2세는 기본 1번하고 지자체에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한 번 더 해주는 경우도 있음. 2세에 대한 암 검진은 국가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주장함. 그나마 하나 들어간 것이 다발성골수종을 2년 전에 포함하게 됨.

○ 피해자의 규모

- 협회 자료 참고: 협회의 자료는 건강수첩 소지자의 통계치
- 건강수첩을 교부 받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1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규모와 유형: 정확한 통계치 없음. 건강수첩 미소지자의 유형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수첩 교부를 거부한 사람들, 피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인도 없는 사람들, 피해 당시 아주 어렸을 때라 기억이 없던 사람 등임.

○ 조사 주기와 조사 목적

- 10년 주기이며 2015년에 6번째 조사가 이루어졌음.
- 원폭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요구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 목적.

○ 실태조사 대상

-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자 중 30%(5만명, 2015년 기준)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
- 전수조사가 아닌 이유: 한정된 예산, 전수 조사할 경우 방대한 작업량에 대한 부담, 30%정도 조사하면 타당할 것이라는 통계적 판단
- 국내/국외 조사 대상은 국적 기준이 아닌 건강수첩 교부자의 현재 거주지 기준임.

○ 조사 방법: 우편 조사

- 우편조사의 협조도는 그 당시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함.

- 우편조사는 도도부현에서 진행: 피해자가 있는 시정촌 또는 국외에 설문조사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수거함.
- 수거된 설문조사지를 중앙으로 발송하고 중앙은 이 자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입력된 데이터와 기초분석 결과를 받음.
- 실태조사 내용의 변화 여부
 - 기록물 보관 연한이 있어 오래전 조사에 대한 기록은 후생노동부 건물 내에는 없음.
 - 다섯 번 째 조사 기록부터 있는데, 조사 내용은 여섯 번 째 조사와 동일.
- 조사 내용의 활용
 - 도도부현에서는 활용하지 않음(자료에 대한 요청도 없음).
 - 후생노동부에서는 실태를 발표하는 자료로써 활용. 정책 자료로써의 활용도는 낮음(거의 활용하지 않음).
 - 원폭 피해자 관련 정책은 관련 단체의 요구를 정기적인 만남(1년에 3~4회)을 통해 확인하여 추진하거나 보완함.

3. 원폭 피해자 2세에 대한 조사와 결과

- 방사선영향연구소
 - 전신: 쇼와 22년에 미국이 방사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한 ABCC
 - 쇼와 50년부터 미국과 일본의 공동출자로 운영되는 연구소
 - 원폭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연구 수행
- 방사선영향연구소의 조사(건강진단)와 결과 활용
 - 2년에 1번 조사하고, 2세도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건강진단도 시행
 - 현재 약 8만 6천여명의 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음
 - 방사선영향연구소의 결과: 2세에 대한 유전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 조사 결과 활용: 후생노동부는 방사선영향연구소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
- 피해자 단체 입장
 -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움.
 -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검사를 받으러 갈 수 있는 사람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이외에 있는 2세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며 1세, 2세 포함 10만 명만을 조사하였음. 2세는 지역 이동이 엄청 많은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검사하지 않아 대상 범위가 너무 좁음.

-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10만 명을 60년동안 역학조사를 해왔다고 하였으나 60년 전에는 방사능에 대해 잘 모르던 시기였고 그 때 검사들이 적절했는지, 분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대학에 이 관련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 중에 연구소가 더 제대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며, 원폭 피해의 유전적 영향에 대해 연구 결과도 냈지만 소수에 대한 연구라 영향력이 적은 실정임.

○ 협회 차원의 2세에 대한 조사 여부

- 2016년에 2세에 대한 앙케이트 실시함. 결과는 분석 중임.
-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2세 협회와 협회의 2세 위원회를 통해 2세의 주소를 받거나 1세 부모를 통해 우편으로 조사지를 보내 수거함.
- 총 3,500부가 수거되었으며 결과는 분석 중임.

4. 원폭 피해자 2세에 대한 후생노동부의 지원 사업

○ 원폭피해자 2세 건강검진 지원사업

- 후생노동부 예산으로 집행, 실제 시행은 도도부현. 예산은 1년에 2억엔
- 사업 목적: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큰 2세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건강검진내용: 기본 일반검진(문진/시진/촉진,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액소 검사, CRP, HbA1c, 요검사)와 다발성골수종에 대한 피검사. (이 외의 암에 대한 검진은 1세대에게만 지원)
- 2세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된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님. 본인이 2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연령이나 정황이 모순이 없으면 검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음. 부모님이 건강수첩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하며 건강수첩 제도가 생기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가능.

○ 건강검진 외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입장

- 2세에 대한 지원은 유전적 영향 근거 또는 조사 결과가 있으면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임. 전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근거가 필요하므로.

○ 2세와의 소통 창구와 소통 내용

- 2세 단체와 1년에 두 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제안서도 받음.
- 2세 단체는 방사선영향연구소 결과만을 정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 하지만 후생성의 입장은 영향연구소 결과를 따른다는 입장임.
- (유전적 영향 관련 사항 외에는) 가능하면 2세 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예전에는 건강검진 장소가 많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졌으나 이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발성골수종을 검진 항목에 포함시킴.

5. 피해자 2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피해자 단체 입장

○ 후생노동성의 검진항목 외 검진 지원

- 일부 도도부현에서는 정기적 암검진을 지원함.
- 후생노동성의 검진항목을 넘어서는 검진 지원 시, 건강수첩을 발행받은 피해자 자녀와 같이 검진 대상을 제한하기도 함.
- 도쿄, 가나가와, 시즈오카, 오사카부의 세츠시와 스이타 시 정도가 2세에 대한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음
-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는 지자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음. 2세 지원을 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나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움.

○ 2세의 건강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

- 암이 제일 걱정됨. 그래서 2세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 이야기 하지만 정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국가에서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는 조사를 하지 않음.

○ 2세대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한 의견

- 제일 바라는 것은 2세 검진에서 암 검진 항목의 추가 확대임.
- 암은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고, 이를 통해 2세의 건강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지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검사기록수첩만이라도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시즈오카와 사이타마는 2세의 검사기록수첩을 교부하고 있음.
 - 이 수첩에는 피폭자 부모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여 기록하여 이 카드를 들고 의료이용할 때 원폭 피해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에 있다고 봄.
 - 건강수첩은 의료비 지원과 이어지는 것이라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므로 건

강검진 결과를 기록하는 수첩만이라도 교부해달라고 요구 중이나 후생노동성에서는 시즈오카와 사이타마 당국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만을 줌.

6. 피해자 1세에 대한 의료비 및 수당 지원 외 지원 사업

○ 건강검진 사업

- 일 년에 2번 정기 건강검진을 시행하며, 희망할 경우 추가로 2번 더 검진 받을 수 있음.
- 추가 희망 2번 내에 암 검진도 할 수 있음.
- 한국의 원폭 피해자 1세에 대한 건강검진: 의사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파견해서 (적십자) 정기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 한국의 병원에서 검사받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일본에서 비용을 지원함.

○ 심리적 문제에 대한 지원 여부

- 정신과에서 의료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은 의료비로 지원함.
-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피해자가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의 30% 경감.
-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1세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건강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심리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의료 서비스로 지원함.
- 반면, 수첩을 받지 못하는(거리 상 기준이 충족하지 못해) 피해자가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하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그러나 원폭피해 당사자에 대한 카운셀링 특별 프로그램 지원 없음.

○ 건강검진 사업 외에 추진 중이거나 고려 중인 정책 또는 사업(1세)

- 원폭요양홈: 원폭피해자들만을 위한 요양홈. 히로시마 4개, 나가사키 4개.
-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 고령자, 단독가구의 경우 제도를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과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고 있음.
- 원폭 피해자 메모리얼 사업: 1세대가 점점 사망하고 있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시작함. 예를 들어 사망자를 추모하는 기념관(나가사키 평화추도 기념관), 원폭 자료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험 수기도 받고 있음(온라인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데이터화 하고 있음). 2세 들이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 가까운 친인척, 친구들이 들은 이야기도 기록함.

- 1세가 외부에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 지원(학교나 사업체 등에).

7. 원폭피해자 전문병원과 노인원폭요양홈.

- 원폭병을 진료하는 지정 의료기관이 따로 있어서 그 기관에서 받아도 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아도 됨.
-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는 전문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 있으나, 전문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 없더라도 지역에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온 의사들이 있음. 치바 현에도 전문병원 있음.
- 원폭노인요양홈은 원폭피해자만 이용함하며 모든 것이 무료임. 현재 8개가 있으나 충분하지 않아 협회에서 관동지방에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개호보험으로 들어가는 요금은 수첩이 있으면 기본은 무료이나 소모품(기저귀 등), 식사비는 지불함. 원폭노인요양홈은 모두다 무료여서 피해자들은 원폭노인요양홈을 더 원하여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적은 실정임.

8. 원폭피해자단체 활동 현황

○ 원수폭피해자단체협회의 주요 주장

- 생존자에 대한 의료비나 수당 지원은 국가가 충실히 확대·지원해왔다고 생각함. 그러나 협회가 처음부터 주장한 두 가지는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음.
- 1) 즉시 사망자에 대한 원조와 법 제정 전 사망자에 대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반영이 안 됨.
- 2) 2세에 대한 원조를 처음부터 계속 주장하였으나 반영 안 됨.

○ 협회의 성과

- 1세에 대한 기본 건강검진 외에 암 검진도 요구하여 30년 전부터 암 검진 시작. 암 검진 항목도 점차 추가함.
- 2세에 대한 건강검진을 계속 주장하여 이루어졌으며 암 검진도 계속 주장하여 다발성골수종에 대한 검사를 2년 전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음.
- 다발성골수종이 들어간 것은 1세대에서 그것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암 검진 항목에서 빠져있었기 때문

○ 한국 피해자협회와의 교류

- 20년 동안 교류를 해오고 있음. 2018년 8월에도 한국에 다녀감. 한국에 똑같이 지원을 할 때부터 교류함.

○ 피해자 2세 단체

- 피해자 2세의 운동은 개별 조합으로 이루어지다 전국 조직을 설립함.
- 그러나 임의단체이다 보니 2세의 요구가 잘 반영이 되기 힘들었음. 그래서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함께하면 2세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최근 2세에 대한 운동도 지원함.

○ 지역의 피해자단체의 운영비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부터 운영비를 보조 받아 운영
- 전체 운영비의 3분의 2는 중앙 정부, 3분의 1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 운영비 활용처: 추모식, 원폭피해경험 발표/강의 지원, 책 발간 지원 등

○ 정부 정책 및 예산 사용에 대한 의견

- 일 년에 9,000명 사망하기 때문에 줄어들 예산만큼을 기념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협회에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2세에 대한 사업. 특히 암 검진 항목을 확대하는 것을 더 원함.

9. 한국의 실태조사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의견

- 60년 전에 조사를 시작한 일본의 실태조사와 이제 조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한국의 경우 조사의 목적이 다를 수 있을 것이므로 조사 목적에 따라 조사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조사만이 아닌 피해자 단체들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